

1. 탄원서 국문 전문

[탄원서] 가덕도 기후재판에 처한 멸종반란/멸종저항서울 활동가의 무죄 판결을 촉구합니다.

지난 2021년 3월 15일, 멸종반란·멸종저항서울의 여섯 명의 활동가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를 찾아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규탄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모두의 멸종을 앞당길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저항한 것입니다. 경찰은 여섯 명의 활동가를 현장에서 연행했으며, 이후 검찰은 공동탄원서 영어 전문 및 지지의 글 예시주거침입과 집시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를 했습니다. 2021년 12월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여섯 명의 활동가에게 총 2,000만 원이라는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섯 명의 활동가들은 행동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이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탄원서에 서명하는 우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멸종반란/멸종저항서울의 여섯 활동가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믿습니다. 이에 법원의 무죄 판결을 촉구합니다.

◇ 이 재판의 본질은 ‘기후위기 가속화 결정’에 대한 저항이 불법인지를 따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를 비롯해 수많은 과학자들이 경고하고 있듯 기후위기는 날로 심화되고 있으며 또 세계 각국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의 많은 시민들이 경찰 연행을 감수하는 시민불복종 직접행동에 뛰어들어 지금의 심각한 상황을 알리고 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조차 인류가 “집단 행동이나 집단 자살이냐는 갈림길”에서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적인 대책은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추구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과감히 감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주도하여 2021년 2월 국회에서 강행 처리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온실가스 감축은커녕 배출을 대대적으로 증가시키도록 하는 법안에 다름 아닙니다. 이에 항의하기 위한 민주당사에서 여섯 활동가의 행동은, 입으로는 기후위기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민주당의 잘못된 결정에 대한 정당한 의사표현이었습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인한 기후위기와 생태파괴 가속화는 존엄하게 행복을 추구할 시민적 권리를 침해합니다. 법원은 현행 법률에 기반하여 활동가들의 항의 행동의 위법 여부를 따지기보다, 상위법인 헌법이 정하는 시민적 기본권에 따라 민주당의 신공항 정책의 위법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 세계 각국이 항공산업을 줄여갈 때, 신공항 건설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와 이에 따라 점증하는 피해에 직면한 세계 각국은 항공 수요를 줄이기 위해 기존 공항을 폐쇄하고 신규 공항 계획을 철회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최고 허브공항인 싱가포르 창이공항은 터미널 증축 계획을 보류했고, 영국 히드로 공항의 활주로 추가 건설 계획도 온실가스 감축 책무를 위반한다는 이유로 위법 판결을 받았습니다. 프랑스 의회는 2021년 4월 고속열차로 2시간 30분 내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의 국내선 항공 운항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항공기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차의 20배에 달하며, 공항을 짓는 데 사용되는 시멘트와 철근, 기자재 등의 생산에서 막대한 온실가스가

배출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덕도에 새로운 공항을 짓겠다는 계획은 기후위기를 막으려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계획이며, 지구의 모든 이들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등 주류 정당과 이 같은 토건개발 사업으로 이익을 얻을 기업들, 이들의 광고로 운영되는 주류 언론은 이 문제에 대해 입을 다물거나 축소 보도해왔습니다. 국민의 안녕과 행복만이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마저 침해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두의 생존을 위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시민적 권리의 문제로 다뤄져야 합니다.

◇ 가덕도 신공항은 ‘멸종’을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전세계 많은 과학자들은 기후위기와 생물종 다양성 파괴를 비롯한 생태위기가 동떨어진 문제가 아님을 말해왔습니다. 2022년 10월초 발표된 세계자연기금(WWF)와 런던동물학회의 지구생명보고서(Living Planet Report)는 1970년 이래 지구 위 동물 개체수의 69%가 사라졌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보고하며 전지구적 ‘멸종’을 경고했습니다. 이런 현실에도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가덕도는 인류가 지켜내야 할 다양한 생명이 살아가는 소중한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가덕도에는 삶, 솔개, 매, 구렁이, 수달, 표범장지뱀 등 우리가 보호해야 할 수많은 생명이 살고 있고, 인근 바다는 멸종위기종인 상괘이의 서식처입니다. 게다가 동백군락지와 사스레피군락지를 포함하는 ‘가덕도 국수봉 100년 숲’은 보존가치가 높아 2022년 10월 한국 내셔널트러스트가 지정한 ‘꼭 지켜야 할 자연유산’ 공동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부산시는 가덕도 신공항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항공기 이착륙에 필요한 시야 확보와 신공항 건설을 위한 바다 매립을 위해 지표 15미터만 남긴 채 해발 264미터의 국수봉을 잘라내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공존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는 오늘, 이런 파괴적인 계획이 가당키나 할까요? 이런 계획을 통해 소수가 이익을 볼지는 몰라도 다수 시민과 생태계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에어시티’라는 신공항 배후도시의 건설지로 지목받고 있는 놀차만은 연안습지 갯벌입니다. 연안습지는 수많은 생명의 보고인 동시에 자연시스템 중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포획하고 저장하는 탄소흡수원 중 하나입니다. 이 귀중한 숲과 갯벌, 생태계를 무참히 파괴하겠다는 계획을 방관한다면 머지않아 인간도 지구에서 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텅 빈 지구에서 스스로 생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멸종’을 앞당기는 결정에 저항하는 것은, 처벌될 수 없는 정당한 시민적 권리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 정치권이 다수의 권익에 반하는 결정을 할 때 시민은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규탄하는 멸종반란/멸종저항서울의 활동가들이 찾아간 곳이 왜 꼭 민주당사여야만 했을까요? 생태계의 멸종, 기후위기의 가속화를 불러올 것이 분명한 그 결정,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강행의 핵심 주체가 바로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민주당이었기 때문입니다. 2006년 노무현 정부의 동남권 신공항 사업을 시작으로, 2007년 이명박 대통령 후보와 박근혜 대통령 후보 모두 대선 공약으로 동남권 신공항을 약속했습니다. 이후 이명박 정부는 밀양과 부산 가덕도로 신공항 후보지를 압축했지만, 두 곳 모두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백지화되었습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도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에 타당성 용역을 맡겼지만, 신공항 건설은 무리라면서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김해공항 확장을 백지화시킨 정부와 부산시는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다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국토부까지 안전·시공·운영·환경·경제성 등 7가지 요소를 들어 신공항안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정치적 논리에 의해 묵살되었고, 민주당은 사회적 공론화 절차도 없이 국회 내 절대 다수 의석을 무기 삼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파괴적일뿐만 아니라 경제성조차 없다는 사실이 그 이후 제출된 사전타당성조사를 통해 드러났지만, 이들은 무리하게 신공항 개발 계획을

강행했습니다. 2020년 '그린뉴딜'을 발표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하며 '녹색성장탄소중립기본법'을 통과시킨 바로 그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앞장선 핵심 주체였습니다. 활동가들은 그 앞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정치권이 시민 다수의 인권과 행복을 침해하는 무책임하고 반인권적이며 반민주적인 행보를 보일 때 활동가가 직접행동을 통해 항의의 의사를 표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행위일 뿐 아니라 시민적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2. 국내 탄원서 서명인들의 메시지

김형수	충남 홍성군 장곡면	
<p>법 집행의 목적은 사회의 최소한을 안전하게 유지하면서도 개별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법정은 단순 법률 자구에 따른 행위만을 판단하는 곳이 아니라, 행위의 사회적 의미 전반을 고려해 사회적 행위를 해석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약자와 소수자, 인간의 기본권을 진전시킨 사건의 사회적 해석은 뒤늦게 법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되기도 합니다.</p> <p>기후위기라는 지구생태의 한계점 도달은 인류의 생존 기반 자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시민의 기본권의 근간 자체를 허물고 있습니다. 기본권 보호와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위한 최소한을 사회적으로 확인하고 규정하는 책임은 1차적으로 시민들의 주권을 위임받은 정치/인에게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p> <p>기후위기를 심화하는 대규모 토목공사와 항공여객운항에 대한 항의는 시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해 당연한 권리이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항의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결사,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하위 법률에 처벌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를 처벌하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책임을 묻는 행위의 정당성을 뒤늦게 확인하는 게 아니라 후퇴시키키는 것입니다.</p> <p>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촉구합니다.</p>		

배효정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p>기후위기와 민주주의에 역행하며 공항 건설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이들이야말로 기후 재판정에 세워야 마땅하고 이에 항의한 활동가들은 지지와 존경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법원이 거꾸로 된 판결을 내린다면 스스로 법의 정의를 훼손하는 것이며, 이는 법적 권위와 신뢰를 상실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가집니다. 법에서 정의가 분리되었는지, 아니면 아직 중요한 잣대로 남아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반대 직접행동을 벌인 멸종저항, 멸종반란 활동가들의 무죄 판결을 촉구합니다.</p>		

강수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p>저는 제주에 사는 18살 학생입니다. 저는 현재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머지 않아 그 꿈이 깨질 수 있다는 사실에 두렵습니다. 바로 기후위기 때문입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UN기본협약체약국회의에 따르면, 2008년 이후, 기후난민은 연간 평균 2150만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의하면, 2050년에는 10억명 가량의 난민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세계 인구의 15%에 해당합니다. 즉 머지 않아 저를 포함한 많은 청소년과 미래세대가 자신의 꿈을 잃고 기후위기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어른들은 그 사실을 외면합니다. 그들은 당장의 경제 성장을 바라보며 저희의 미래를 아무렇지도 않게 파괴하고 있습니다.</p> <p>그러나, 2021년 3월 15일, 여섯 명의 활동가 분들께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규탄하기 위해 행동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분들께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와 환경을 위해 목소리를 외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는 점에 저는 큰 희망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그 분들을 유죄로 받아들여 2,000만 원이라는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하였습니다.</p> <p>이는 최상위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에서의 원칙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p>		

우리들과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장하여야 할 기관은 바로 법원입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구성원들의 안전과 자유, 평화를 위해 노력한 활동가 분들을 유죄로 판정하였으며, 이는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여섯 명의 활동가 분들을 무죄로 판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를 통해 기후정의의 위하여 더욱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법원에서 보장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시은숙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남동	
-----	---------------	--

신공항 건설로 인한 기후위기와 생태파괴 가속화는 시민들이 기본적으로 누리고 살아야 할 환경을 파괴하는 것으로 행복을 추구할 시민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기에 피고인의 활동은 정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가덕도가 본연의 생태가능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검토하여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인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	----------------	--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6세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저는 아이가 살아갈 미래가 너무 걱정됩니다. 당장 3년 후부터 찌는 듯한 폭염, 폭우, 혹한 등이 더 심해질거라 하던데 대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만일 재판장님께 자녀가 있고 또 그 자녀분이 아이를 낳는다면, 이번 재판에서는 꼭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주셔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지금까지 정치와 경제라는 어른들의 협소한 논리로 파괴해온 아이들의 미래를 구해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용기를 내어 반대를 외친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미래가 연장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없다하더라도, 이 분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일은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 미래세대를 위한 법의 정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자랑스러운 선례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부디 최근 밀어닥친 각종 기후 재난들을 떠올려주십시오. 코로나 뿐만 아닙니다. 홍수 속에, 폭염 속에, 극심한 가뭄으로 불타버린 탄소흡수원인 산들, 2m 넘는 눈 쌓인 미국 등 이런 기후 재앙 속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공항을 짓는다면, 우리 아이들은 윗세대 어른들에게 절망의 눈길을 보내고 이윽고 어른들을 포기할 것입니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전지구적인 기후 위기, 인류 및 미래세대에 대한 극심한 염려에서 비롯된 것임을 참작하여 주시고, 그에 걸맞게 지구적인 규모에서의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노혜린	광명시 광명동	
-----	---------	--

생명을 위한 직접행동은 범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생명이며 생명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공항이 아니라 생명들과 뛰어 놀 들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건 공항과 비행기가 아니라 풀과 열매들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끼는 건 광막한 아스팔트 도로가 아니라 풀빛 야생입니다. 우리가 밭 딛고 살아가는 서식처는 콘크리트 땅이 아니라 바다와 흙입니다. 삶, 술개, 매, 구렁이,수달, 표범장지뱀의 슬픔은 우리의 슬픔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해치지 않고서 다른 이를 해치는 것이 불가합니다. 당신 자신을 해치는 일을, 제발, 멈추세요. 이 모든 헛된 논리를 그만 두고 당신과 생명과 생명으로, 사랑과 사랑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 만남시다.

이동환	부산 사하구 하단동	
-----	------------	--

당시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한 민주당에 이 사업의 부당함을 국민으로서 전달한 것입니다.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정당들이 정파적 이익에 따라 항의의 목소리에 이렇게 징벌적 청구등으로 재판을 회부한다면 어느 국민의 자유롭게 항의와 비판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가덕도 신공항은 기존의 법을 완전히 무시한 채 특별법 제정으로 진행되는 초헌법적인 행위에 의해 탄생한 사업입니다. 초헌법적인 사업과 특별법을 입법권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마구잡이로 제정한 민주당에 대해서는 그 어떤 책임도 지울 수 없음에도 이에 항의와 반대의 목소리를 내었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에 회부되고 벌금형을 내린다는 것은 너무도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왜 그들이 민주당사를 점거하면서까지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했는지에 대해 귀 기울여주시고 그들의 목소리가 국민의 이익에 부합함을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김은영	서울시 은평구 역촌동	
-----	-------------	--

법정에 선 여섯 명의 시민들은 피고인이 아닌, 대한민국 땅의 은인입니다. 저는 그들이 우리들의 멸종에 저항할 때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위기에 맞선 이들이 처벌 받는 현실이라니요. 이렇게 그들의 투쟁이 죄로써 받아들여진다면, 앞으로 그 누가 우리들을 위해 세상을 위해 나서려 할까요.

그들의 행동이 이번 재판에서 끝내 유죄로 남게된다면, 위기 속에서 용기 낸 목소리들은 이제 어디로 가야하나요.

원동일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로 113	
-----	------------------	--

기후생태위기는 자본과 생명의 싸움입니다. 기후생태위기를 가속화 시키는 신공항 건설에 저항하고 규탄하는 일은 생명편에서서 생명들의 생존권을 지키려고하는 기본권과 관련된 일입니다.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행동이 불법이 되어선 안됩니다

이용석	경기도 파주시 목동동	
-----	-------------	--

피고인들의 행동은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기후위기가 심각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주장이고 특히나 기후위기 대응의 주요 행위자가 되어야 하는 정부가 오히려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막아서는 것이니만큼 시민으로서 민주적 책임에 충실한 행동이었습니다.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또한 비폭력 직접행동은 민주주의의 확장에 큰 기여를 시민들의 유구한 정치행위입니다. 가장 상징적인 예시로는 미국의 인종차별법을 폐지하게 만든 마틴 루터 킹 목사와 흑인민권운동 활동가들의 직접행동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비폭력 직접행동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해야 하며 만약에 실정법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과도한 양형은 시민들의 직접적이고 민주적인 정치 참여를 막아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유선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	-------------	--

활동가의 직접행동을 지지합니다. 신공항 개발은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겠다는 전지구적 합의에 정반대되는 일입니다. 서식지 파괴와 가속화되는 기후위기 재난들은 신공항 개발로 돈 버는 자들만 피해가겠죠. 정의롭지 않습니다. 신공항은 위법적이고 활동가들의 행동은 정당합니다.

성선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	-----------------	--

멸종반란. 멸종저항 활동가들은 정당한 시위를 했는데 이들에게 벌금선고는 재갈을 물리는 행위로 세계는 지금 기후정의 행동에 앞서 나가지 않음 살아나갈수 없는 환경입니다.. 이들에게 무죄판결로 답해주길 재판부에 탄원합니다.

박지희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	-------------	--

재판부는 활동가들의 정당한 활동을 지지하며 그들의 무죄를 인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요한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	--------------	--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적극 반대합니다. 그 곳에 무수한 생명들이 살고 있습니다.

성유담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	
-----	---------------	--

수많은 생명과 종들의 대멸종을 걱정하여 목소리를 내는 것이 불법이 된다면 그 법이 잘못된 것이 아닐지... 자신들의 배를 불릴 생각만 하는 정치권에게 저항하는 행동을 지지합니다.

조연지	부천시 역곡동	
-----	---------	--

가후가속화에 대한 저항이 죄라니, 그렇다면 민중은 무슨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까. 정치 참여를 저지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김소연	경기도 광명시 광명5동	
-----	--------------	--

이 경이로운 지구별을 지키기 위해 우리 못까지 힘껏 애써주시는 분들에게 벌금이라니요.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6명의 활동가들의 무죄 판결을 간절히 바랍니다.

김보람	광주광역시 남구 임암동	
-----	--------------	--

정당한 요구가 벌금형을 받을 순 없습니다. 누가 진정한 가해자인지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주세요.

박혜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	------------------	--

멸종과 기후위기 가속화를 막기 위한 행동이 불법이 될 수 없습니다. 무죄 판결 촉구합니다.

김희룡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	-------------	--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이미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탄소중립2050 정책에 반하는 결정입니다. 피고인들은 죄가 없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큰 재앙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임도훈	대전 중구 태평동	
-----	-----------	--

모두를 살리기 위해, 간절함을 가지고 한 일입니다. 생존권 보호를 위한 일입니다. 이런 시민행동에 처벌은 안될일입니다.

한아름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	--------------	--

기후위기사대, 지구의 회복을 위해 인간은 책임을 다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대합니다.

박종일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	-------------	--

환경정의는 다음 세대에게 진 우리의 부채다.

박연미	부안군 보안면	
-----	---------	--

법으로 제지하기보다 공론화할 문제입니다. 생명을 지키려는 용기있는 시민들을 지지합니다

박한나	세주시 연동	
-----	--------	--

도대체 언제까지 얼마나 더 파헤치며 인간만의 개발을 지속하려 합니까? 이제 우리는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제발 개발을 멈춰주세요.

송경옥	서울 강서구 등촌동	
-----	------------	--

다가오는 파국을 막으려는 최소한의 의사표시가 법정에 서야 할 정도로 위법한 일입니까?

김한결	경기도 군포시 대야미동	
-----	--------------	--

멸종반란 무죄 신공항건설 유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킨 국회와 거대정당의 행보는 시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국민의 대표가 도리어 시민과 생태계를 죽음과 학살로 몰아 넣은 범죄입니다
 법 위에 있는 생명과 정의를 지키고자 적극적으로 저항한 시민들에게 무죄를, 개발이익에 눈이 멀어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책무를 저버린 국회에게 유죄를 선고해주세요

강이슬	세주시 조천읍	
-----	---------	--

생명이 아닌 오직 돈만 바라보고 이루어지는 착취에 반대하는 것이 그리 잘못된가요?

김미정	서울 성북구 정릉동	
-----	------------	--

‘멸종’을 앞당기는 결정에 저항하는 것은, 처벌될 수 없는 정당한 시민적 권리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저 또한 이 분들의 행동을 지지하며 함께 연대합니다.

고동민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	-------------	--

기후위기의 진짜 피고는 거대자본과 국가입니다

성예람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동	
-----	--------------	--

사람이 살고자 목소리 내는 것이 어찌 불법이겠습니까. 신공항 건설은 그야말로 기후위기를 가속화하고 인류의 멸종을 앞당기는 일입니다. 우리만이 지구의 자원을 누리고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들과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는 기후변화를 느리게 할 방안을 찾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미 한계점에 다다른 시점에서 세계적인 흐름에 거슬러 신공항을 건설하겠다는 말은 개탄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여섯 명의 활동가에게 무죄 판결과 함께 신공항 건설 계획을 폐지하십시오.

이영주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	-------------	--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정치권의 행태를 시민은 보고 있어야만 할까요? 무관심이 바람직한 시민의 역할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역할은 사회가 더 나은쪽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갖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라고 초등학교 도덕시간에 배웠습니다. 피고인의 행동은 민주사회에서 시민에게 부여한 너무나도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린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	--------------	--

“데모하는 게 벌 받으면, 데모하게 만든 사람은 무슨 벌 받습니까?”
 우리의 법이 우리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우리에게 남은 행동은 저항 뿐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저항하려는지, 저지하려는 이들은 무엇을 지키려 하는지 바라봐주십시오. 폭력을 막으려 한 행동이 폭력이 되는 세상에서는 누구도 폭력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안경선	충북 충주시 문화동	
-----	------------	--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다수의 건강권이 무참히 침해당하고, 죄없는 동물과 식물,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지구의 모든 존재들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눈감고 귀막고, '높으신 분들이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하며 지내온 결과가 '기후위기'입니다.
 이미 권력과 부를 잡고 있는 분들은 변화따위 필요 없겠죠. 하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 젊은이들은 변화가 절실합니다. 날로 뜨거워지는 여름, 추웠다 더웠다 반복하는 겨울. 수시로 찾아오는 폭우, 폭설, 폭염, 한파. 치솟는 물가 속에서 냉장고에는 풀한포기 없이 매마른 냉동식품만 가득하고, 도심 속에서 자연이라고는 쑥덩 짤린 가로수들 밖에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자 터전인가요?
 돈 없고, 권력도 없고, 백도 없는 존재들이 이 재난과 암담함, 날로 싸늘해지는 도시의 풍경과 개발이라는 탈을 쓴 자들의 욕심에 대응해 할 수 있는 것은 직접행동, 비폭력 저항 뿐입니다. 우리에게 저항할 자유마저 빼앗아가지 말아주세요.
 인간이 어디까지, 언제까지 개발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멈춰야 할 때입니다. 환경과 파괴를 일으키는 결정은 생태계 학살, 범죄입니다. 법원의 올바른 결정으로 우리 활동가들이 앞으로 더 많은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활동을 해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황진아	대전시 정림동	
-----	---------	--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자리 아닙니까. 시민이 목소리를 낸 것을 듣고 수용하지는 못하고, 죄를 묻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저야 할 책임을 지세요.

이희상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	-------------	--

양심에 따른 행동을 처벌 한다면 누가 행동으로 정의를 실현 할것인가!

강다현	서울시 도봉구 창동	
-----	------------	--

죽음을 딛고 세운 건물을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연한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은주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	-------------	--

기후정의 활동은 인류를 비롯한 지구의 생존을 위한 활동입니다. 이를 탄압한다면 인류의 생존을 탄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상복	고양시 덕양구	
-----	---------	--

정치인과 정당을 향해 심각한 기후위기.멸종저항 각성 운동을 펼치는 일을 탓해선 안됩니다. 특히 민주당은 집권당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유불리만을 따져 신공항을 강행하였기에 이에 대한 시민활동가들의 항거행위를 위법 시하는 것은 정당치 않습니다.

박유미	인천시 부평구 산곡3동	
-----	--------------	--

우리나라 규모에 기존 공항들만으로도 이미 포화상태입니다. 기후위기를 더욱 조장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소담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	-------------	--

멸종에 대한 저항이 불법이라면 그 법은 정의롭지 않다

한자원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동로	
-----	----------------	--

저부터 정부를 상대로 고소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헌법에 근거해 우리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정책을 정부가 나서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위기의 신호를 보내는데 우리들의 대처는 너무나 수준이 낮습니다. 더이상 당신들에게 나와 미래세대의 권리를 넘겨줄 수 없습니다. 멸종반란 활동가들의 저항은 활동은 정당합니다. 무책임한 정부가 지탄받아야 마땅합니다.

김기현	부천시 원미구 중1동	
-----	-------------	--

가덕도신공항은 실질적인 영향을 받을 미래세대의 입장에서 공론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주적인 숙의도 없이 추진하는 국가의 책임이 다루어져야 합니다

조현나	전남 순천시 상사면 응령동	
-----	----------------	--

탄소를 줄이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정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후위기 시대에도 이전 시대의 개발을 멈추지 않는 정부는 누구의 이익을 위해 신공항을 추진하는 것입니까? 이런 정부에 저항하는 것은 시민의 의무입니다. 불의에 눈감고 입막은 시민이 그렇게 자랑스러우십니까?

김주호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	-------------	--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국가는 침해하고 있습니다. 생태계를 파괴하고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반대합니다. 활동가들의 저항은 정당한 행동이었고, 국민 주권을 지키기 위한 합법적인 행동입니다. 기후위기 시대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정부의 결정을 규탄합니다!!

최지한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	--------------	--

양심을 따르는 일은 죄가 될 수 없습니다. 더욱이 그 일의 동기가 특정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 아닐 때는요.

김상균	서울 강남구 대치동	
-----	------------	--

인류가 지금 당면한 기후위기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않으면 대량멸종을 당한 우려가 있다고 유엔 사무총장 구테흐스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계획은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박근혜 정부에서는 타당성이 낮아 기각된 사업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계획을 강행하는 것은 기후위기를 더욱 심화할 뿐입니다. 기후활동가들의 직접행동에 대해 재판부의 지혜로운 판단을 촉구합니다.

성준일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	-------------	--

권력자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피해를 보는 대중이 권력에 저항하는 것은 정당방위입니다.

한만호	인천 연수구 옥련동	
-----	------------	--

정치적 이유로 건설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성없다 전문가들이 결론된 것을 실행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나도 김해공항을 확장해 비용절감 편리성 추구 신공항건설에 들어갈 비용을 사회적약자 와 시민들의 복지에 쓰여지는것이 더욱 타당성있는것이라 판단됩니다. 국가금고에 부채타령하면서 뻔히 보이는 경제불익을 감수하고 국민

편의를 앞세워 정치적 잣대를 들이댄 무모한 이국책사업은 국민의한사람 으로서 반대합니다 만약 이공사를할거면 가덕도신공항밀어붙이는 정치인 또는 찬성하는 이들에게 경제적 손실분 금액을 분할하여 책임지겠다는 책임보증 한후에 건설하시길바랍니다 ..

박진교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	-------------	--

편리는 선택이고 공생은 생존입니다.

박효영	군산시 미룡동	010-4079-6682
-----	---------	---------------

미래의 주인인 아이들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재판의 본질이 흐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기 원합니다.

유휘경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4동	
-----	---------------	--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신공항 건설 계획을 철회하십시오. 지난 30년간 이어진 간척사업으로 우리나라 연안생태계는 서해안 간척지를 잃었습니다. 보존 가치가 높고, 블루카본의 최대 흡수처인 간척지를 복원하여 그곳을 삶터로 삼는 어민들과 연안 생물들의 정주권과 안전권, 건강권, 행복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가덕도를 포함한 국내 8곳(기존 계획상 10곳)에 대한 신공항 건설 계획은 시대를 역행하는 결정이며, 개발과 자본의 논리만 좇는 이들이 국책사업이라는 이름 하에 행하는 생태학살이자 생태범죄입니다.

이 소송은 만족을 모르고 개발만 일삼는 인간들이 원주민의 삶터를 빼앗으려는 행위가 불법인지 아닌지,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중립계획을 발표하고도 가장 많은 탄소를 내뿜는 공항을 건설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과 세계 시민들의 ‘안전하게 살 권리’와 ‘행복하게 살 권리’를 침해하겠다는 선포한 대한민국 정부의 이중적 태도가 국민과 세계 시민의 공통 가치를 기만한 결정인지 아닌지, 그 기만이 가져올 결과가 단순히 몇몇의 ‘손해’이자 ‘불행’일뿐 다수의 ‘이익’과 ‘행복’이 뒤따를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으로 국민의 눈을 가리고자 하는 정부의 태도와 행동이 위법인지 아닌지를 가려내는 자리여야 합니다. 더 이상의 개발은 불필요 합니다. 개발과 착취를 멈추고 공존과 복원, 보전을 위해 힘쓸 때입니다.

지금도 너무 늦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윤영묘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	
-----	--------------	--

지구의 존속. 생명체의 다양한 공존. 지구는 후대에게 물려줄 유산입니다. 우리대에 함부로 개발한다면 우리의 후대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멸종반란/멸종저항 서울활동가들은 무죄입니다. 우리가 해야할 일을 대신해 주었습니다. 지구가 아플때 누가 소리쳐주고 울겠습니까.

재판장님, 지구를 그만 개발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있는 공항만으로 만족하고 유지.보수하기를 바랍니다. 가덕도 신공항 개발은 경제성도 없고 정권 이익에 이용된 개발계획입니다. 오히려 가덕도를 잘 보호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후손들이 가덕도에 와서 휴양할 수 있게 합시다. 우리대가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갑시다. 재판장님, 우리와

가덕도의 많은 생명체를 대신해서 비명을 지른 멸종반란/멸종저항 서울활동가들에게 무죄를 선고해주시기를 탄원합니다.

항윤	전북 군산시 회현면	
----	------------	--

심각한 기후위기로 인류는 현 세기 안에 멸종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멸종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행동은 정당합니다. 재판부는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로 모두를 멸종으로 몰고가는 신공항 건설 추진자들에게 죄를 물어야 합니다!!

홍서영	여주시 중앙동	
-----	---------	--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은 인류의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세계적인 규모의 위기상황이므로 세계적인 협력이 불가피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탄소 배출을 조장하고 생명 다양성을 파괴하는 결정을 한다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 흐름에 도태되지 않도록 막아준 활동가들에게 우리는 고마워해야 합니다. 특히 정부는 이러한 인재들을 귀하게 여기고,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자본가들이 아닌, 활동가들의 말에 귀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박영만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읍	
-----	---------------	--

원고와 피고가 뒤바뀌었습니다. 법원은 이 뒤바뀐 상황을 잘 파악하여 이를 바로 잡을 권한과 책임 및 (세금으로 녹을 받는 입장에서) 의무가 있습니다. 현명한 판결로 공동의 집인 지구가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데, 이바지하여 주길 바랍니다.

노주현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	--------------	--

국민이 국가의 사업에 반대하는 목소리든 찬성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입니다. 국민이 목소리를 낸다면 다 이유가 있는 것인데 대화의 창구조차 닫아버리고 민주주의 기본조차 하지 못했으면서 활동가들에게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졸렬한 짓을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대의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세종대왕께서도 조세법을 바꿀때 국민들에게 의견을 묻는 기간이 25년 걸렸다는 걸 모르시는 건지 갑답합니다.

성유경	강릉시 송정동	
-----	---------	--

무한성장개발은 미래가 없습니다.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속가능성만이 모두의 미래이자 대안입니다.

배은지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	-------------	--

강서구에 사는 인근 주민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사업타당성도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되지도 않는 엑스포 특수를 노리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사업입니다. 특히나 기후변화 대응에 역행하는 사업이고 가덕도의 생태적 문화적 역사적 가치와 지역주민의 삶을 짓밟아버리는 일입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사업을 조속히 통과시키기 위한 특별법 통과를 철회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에 가담한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배찬민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	-------------	--

존경하는 재판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멸종반란의 지난 재판 과정에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종변론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피고인들이 인간을 포함하여 이 지구에 살아가는 모든 동식물들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한 행동의 후과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개개인들의 삶에서 겪어야 했을 일들을 제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거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지구에 살아가는 한 생명체이자 지구를 가해하는 공범자 인간으로서 피고인들에게 큰 빛을 졌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입장을 바꾸어 재판장님의 자리를 생각해보기도 했습니다. 기후위기를 눈앞에 두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방식, 체제, 구조 모두를 뒤바꿔야 한다는 건 한 개인의 삶 앞에 너무나 두려운 일입니다. 때문에 이 재판이 앞으로 있을 기후정의활동에 중요한 만큼 재판장님 또한 한 명의 개인이기에 오롯히 책임지고 판결을 내리기에 너무나 버거운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님, 법이 지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현행법의 테두리를 벗어남을 감수한 이들의 시위는 인간중심적으로만 생각해보더라도, 법이 지키고자 하는 인간사회를 존속시키기 위해 인간이 관습적으로 행해온 파괴의 질서를 바꾸기 위한 행동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법이 지키고자 하는 사회, 우리의 터전을 파괴하는 법입니다. 법이 추구하는 가치를 배반하는 신공항 특별법을 비판함으로써 법의 명예를 지킨 것도 이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들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킨 집권여당의 당사에 올라 더이상 함께 살아가는 이 지구의 생명체 모두를 죽일 수 없다는 외침은 지구상의 가장 약한 존재부터 최상위 포식자인 인간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이들조차 살리고자 한 것입니다.

이들이 살리고자 한 것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그것이 처벌받아야 할 일인가요.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지역 주민들은 물론 그곳을 삶의 터전으로 하는 동식물들을 모조리 말살시키겠노라 하는 이들을 저지한 이 외침에는 죄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들이 더이상 달리 방법이 없어 당사에 올라가게 하고 그들에게 죄를 묻는 이 사회에게 그 죄가 있습니다.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 재판장님을 비롯 우리 사회 구성원이 해야 할 일은 이 목소리의 편에서는 것입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 탄원서를 재판장님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을 맺겠습니다.

자신의 삶보다 이 지구의 삶을 살리고자 했던 피고인들에게 선처를 베풀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